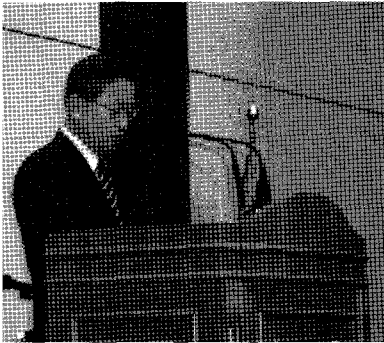


부산시 수준높은 화장실문화 만들기 시민토론회를 다녀와서

글 | 변일부



정영식 환경국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 인사말을 대독하였다.

부산의 공중화장실의 개선정책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이 월드컵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일념으로 화장실 개선정책을 펴온 부산광역시는 월드컵 첫승이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어 그 기쁨을 더하였고 월드컵이 끝난 올해는 2,074개소의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이후 화장실문화 정착에 나섰다.

부산시는 그동안 58억원을 들여 166개소의 화장실을 정비하였으며 건축사등 관련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화장실 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개방화장실을 1,700개소까지 확대하였다.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화장실」을 모토로 삼아 유도사인 200개 건물외벽등에 2,000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악취제거를 위하여 4억8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128명의 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전담 순회관리인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129개소를 대상으로 1단체에 1화장실을 지정하여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애써왔다. 부산 YWCA는 부산시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좋은 화장실 문화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 화장실, 마운 화장실 신고창구' 운영, '좋은 화장실이 있는 음식점선정' 등의 화장실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고, 밝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등은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 공중화장실 기동 봉사반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협회가 후원하는 베스트 10 화장실 심사에서 용두산공원 화장실과 대종대유원지 전망대화장실등이 베스트 화장실로 선정되는 등 칭찬의 인정을 받았고 공중화장실이용만족도조사에서 이용자의 83%가 양호하다는 응답을 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식전행사

5월 30일 오후3시 국제 대회의실 로비에는 부산의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을 펼쳐 놓았으며 비가 내리는 중에도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정면좌석을 거

특 채워 부산의 화장실문화 정착을 바라는 열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부산의 화장실문화를 가꾸어나가는 하수도과 오수관리담당 황동철계장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 안상영시장은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늘리거나 새롭게 단장하고 도로변 등의 1,700개소의 화장실을 개방하여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부산의 화장실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하다는 호응을 받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것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로 이루어진 값진 땀방울덕택”이라고 치하하면서 지금까지 잘 가꾸어진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시설관리에 보다 역점을 둬으로써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화장실, 항상 열려있는 화장실, 부담없이 찾고 만족하는 화장실 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참석자의 발표와 토론

주제발표

지난 2000년 한국에서 최초로 이동화장실 디자인전을 기획하였던 **인제대학교 박영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박영근 교수는 지난 몇 년간 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화장실의 수준도 급속히 좋아졌으며 앞으로는 안전과 청결 유지관리문제가 앞으로의 화장실문화정착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모두발언을 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협회 강석남 사무국장**은 “시민의식이 문제다라는 식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을 진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한 두명의 잘못된 이용사례를 들어 전체 시민의 의식을 호도하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며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행하였던 정책의 예를 들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철도역사의 화장실을 예로 들어 관리체계의 차이로 인한 시민의 행동양식의 차이를 이야기 하며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강석남국장은 “1997년이 화장실시설의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해였다면 2003년은 화장실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해로 기록될 것이며 이일에 부산이 앞장서는 것”이라며 부산이 전국의 화장실 유지관리 시스템 모범도시로 나아가기를 기원하였다.

이어서 **부산대학교 안정현 교수**는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하는데 공중화장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아직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용두산공원 화장실이나 태종대의 전망대 화장실이 대표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쾌하고 불결한 화장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지가 대체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어릴 때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교육과 학교화장실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부산YWCA 김혜경 회원활동부장은 “지난해까지 행정당국의 시설개선으로 화장실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후지 타올 비누 등 비품부족과 악취와 수도에서 물이 안나오는 등 관리 소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부족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 박영근교수의 사회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운영방안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리자조직 및 교육, 친환경적인 시설보완, 장애인 노약자 시설의 확충 등 행정체계의 지속적인 강화가 요구된다고 역설하면서 화장실문화의 정착은 행정의 지원과 더불어 시민의 변화된 실천에 의해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다짐하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부산광역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화장실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400만 부산시민의 의식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 공급자의 의식수준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자치구·군의 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 관리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최문환차장은 “부산시내 아름다운화장실을 발굴 선정 시상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건축과정에서 기능적요소가 중점이 되고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발전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화장실 사용을 내집같이 하자는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제도적 정비 중요성 제기

토론시간에는 공중화장실법안제정이 조속히 되는 것과 협회가 추진하고있는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도가 장기적으로 화장실문화정착에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개진되어 제도적인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그간 화장실문화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리인의 부족과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청결유지에 애로가 있었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시민들의 시설물 훼손 및 용품절취행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계도에도 힘쓰겠다고 앞으로 청결관리와 시민의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깨끗한 화장실, 찾기 쉬운 화장실, 수준높은 화장실, 이용문화수준향상”의 목표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문의: 부산광역시 하수도과 오수관리담당 051)888-3923)